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한 형제자매된 독자 여러 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교회에 들어온 비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를 조명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있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교개혁 500년, 한국 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6년 한 해 동안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 경제사학회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전문위원, (사)가톨릭교세계관학술통영회 공동회장이지 이사이다. 저서로는 “제도의 힘”, “지분주의 사회를 보는 두 시각”, “사망인가 정부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힌 95개 조의 논쟁은 종교개혁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리포(Refo: Reformation)500'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개혁신학회, 한국칼빈학회, 한국루터학회 등 주요 7개 신학회와 각 교단의 신학교들이 참여해서 2011년에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를 조직했습니다. 2017년 까지 사업 주제를 '종교개혁과 한국 교회의 갱신'으로 정하고, 연구프로젝트,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전자도서관 설립 및 자료 네트워킹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에서는 캐치프레이즈를 '나부터 개혁하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 개혁이라는 명제로 개혁의 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성과 통찰을 기반으로 한국교회의 변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나부터 개혁하자”고 하면 개혁하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누구도 감히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없지만, 그래도 개혁할 것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나부터 개혁하자”는 구호를 제시하는 것은 쉽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당한 얀 후스(Jan Hus)나 영국 크랜머 대주교, 윌리엄 윌리엄스, 니콜라스 리들리 주교 등의 순교를 생각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개혁하는 정도



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옳은 것을 말하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제2의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심정으로 근본부터 다시 바꿀 것은 바꾸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지역교회들이 벌써 종교개혁 현장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준비가 한창인 독일도 8개의 관광코스를 마련하고, 독일관광청에서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고려한 여행 상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왕 여행가는 것이니 종교개혁의 발상지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화회도 주제를 종교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말 교회가 환골탈퇴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진정으로 다시 개혁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기 종교개혁 정신에서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 뿌리부터 되짚어보는 일을 한 해 동안 진행했으면 합니다. 먼저 1, 2월호에서는 전체 개혁 과제를 총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에 한 가지씩 개혁과제를 점검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